

KIA 이의리·크로우 '시즌 아웃'...마운드 '비상'

이의리 팔꿈치 수술 예정...크로우 인대 재건술 마쳐 항동하 선발 유지·알드레드 '워밍업' 등 재정비 분주

쉽 없이 달려왔던 KIA 타이거즈 이의리가 긴 휴식에 들어간다.

KIA는 2일 "이의리가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 및 뼈조각 제거술을 받는다"고 수술 소식을 전했다.

이의리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복수의 병원에서 왼쪽 팔꿈치 정밀 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은 이의리는 구단과 '재활'과 '수술'을 놓고 고심했다.

KIA와 이의리는 면담 끝에 수술을 최종 결정했다. 언젠가는 털고 가야 할 고질적인 문제였던 만큼 완벽한 복구를 위해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이의리는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던 2021년부터 KIA의 선발로 자리를 지켜왔다.

프로 첫해 19경기에 나와 94.2이닝을 소화하면서 3.61의 평균자책점으로 4승 5패를 기록했다.

이의리는 이해 코로나19로 한해 미뤄 치러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슈퍼 루키'다운 활약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의리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미국을 상대로 두 차례 선발로 나서 각각 5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10이닝에서 18개의 탈삼진을 장식하면서 일본 아마모토(11이닝 18탈삼진)에 앞서 도쿄올림픽 탈삼진 1위 자리에도 올랐다.

하지만 이의리의 고군분투에도 한국은 4위에 그치면서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팀에서의 활약은 물론 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 역할을 한 이의리는 시즌이 끝난 뒤에는 신인왕 수상자로 KBO 시상식 단상에 올랐다. 1985년 이순철에 이어 36년 만에 탄생한 타이거즈의 두 번째 신인

왕이었다.

이의리는 프로 두 번째 시즌이었던 2022년에는 10승 투수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시즌에도 11승을 수확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다. KIA의 확고한 선발로 자리한 그는 WBC 대표팀에도 출전하면서 팀은 물론 리그의 현재이자 미래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쉽 없이 달려왔던 이의리는 지난 4월 10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팔꿈치 이상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이의리는 5월 29일 NC 다이노스와 원정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렀지만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다.

이의리는 날씨가 잡히는 대로 수술대에 오르게 된다.

6월 '체력 싸움'을 예고했던 1위 KIA는 다시 한번 '부상 압축'을 맞았다.

'주장'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지면서 고전했던 KIA는 이의리와 함께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나란히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리가 복귀전은 치렀지만 결국 수술을 결정했고, 크로우도 미국에서 재검진 결과 우측 내측측부인대 손상으로 31일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두 선수의 시즌 아웃이 확정되면서 KIA는 마운드를 재정비한다.

5월 30일 NC전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첫 퀄리티스타트와 함께 2승째를 수확한 황동하가 선발 군히기에 들어갔고,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영입한 좌완 캠 알드레드도 KBO리그 데뷔



KIA 타이거즈 좌완 이의리가 왼쪽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 및 뼈조각 제거술을 받기로 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를 위한 워밍업을 시작했다. 알드레드는 지난 31일 인공해 합평철펴린저스필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알드레드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소화할 때까지 임기영이 선발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당장 이의리의 등판이 준비됐던 4일 임기영이 선발로 나선다. 이후 알드레드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영은 불펜

으로 이동해 통릴리프로 허리 싸움에 힘을 더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가 던지고자 하는 의욕과 욕망이 강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재 활을 하면서 던져보려는 게 강했는데 한번은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복귀까지) 1년, 길면 1년 조

금 넘게 걸리지 않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임기영을 선발로 쓴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들어오면 임기영이 중간에서 통릴리프로 가고, 황동하를 계속 선발로 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수영 올림픽 준비 '착착'

김우민 자유형 400m 개인 최고 金·황선우 100m 대회신

마레 노스트럼 3차 대회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노리는 한국 수영 경영의 '간판 듀오' 김우민(22)과 황선우(21·이상 강원도청)가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민은 2일 모나코 엘버트 2세 워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4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호준(제주시청)도 3분48초43으로 역영해 2위에 올랐지만, 김우민의 기량이 월등했다.

김우민은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3분42초71을 0.29초 당기는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다.

박태환이 보유한 한국 기록(3분41초53)에도 점



왼쪽부터 김우민, 황선우, 이주호.

점 다가서고 있다.

김우민은 5월 31일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바르셀로나 대회(3분44초81)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

파리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메달 획득을 향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김우민은 이 종목 2024년 기록 순위에서 루카스 마르텐스(3분40초33·독일), 일라이자 워닝턴(3분

41초41), 새뮤얼 쇼트(3분41초64·이상 호주)에 이어 4위를 달린다.

두 차례의 마레 노스트럼 대회에서 훈련 성과를 확인한 김우민은 3분41초대 진입과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을 위해 속력을 높일 생각이다.

바르셀로나 대회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은메달만 2개를 딴 황선우는 모나코에서는 대회 신 기록을 세우며 금맥을 짚었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91로, 48초67의 2위 톰 톤(영국)을 여유 있게 제쳤다.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48초51로 2위를 했던 황선우는 모나코에서는 47초대 진입에 성공하며 시상대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황선우는 2014년 네이션 에이드리언(미국)이 세운 마레 노스트럼 전체 대회 기록 48초08, 1994년 알렉산더 포포프(러시아)가 작성한 마레 노스트럼 모나코 대회 기록 48초21을 모두 바꿔냈다.

"한국 배영 간판" 이주호(서귀포시청)도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주호는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54초01로, 53초34에 터치패드를 찍은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그리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바르셀로나에서 이주호는 배영 100m 2위(54초03), 200m 1위(1분56초73)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레알, UEFA 챔피언스리그 15번째 우승

도르트문트 2-0 완파

스페인 프로축구 '거함' 레알 마드리드가 통산 15번째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일 영국 런던의 웨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시즌 UCL 결승에서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2-0으로 완파하고 우승컵 '빅이어'를 들어올렸다.

후반 29분 다니 카르바할, 38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에 앞장섰다.

UCL에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는 2021-2022시즌 이후 2년 만에 통산 1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이후에만 6차례 빅이어를 가져가며 유럽 최강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대회 16강에서는 라이프치히(독일), 8강에서는 지난 시즌 3관왕의 주인공이자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준결승에서는 독일의 명가 바이에른 뮌헨을 차례로 거꾸러뜨리고 결승에 올랐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역시 통산 7번째 UCL 결승 무대에서 5번째 우승을 지휘해내며 '명장'임을 재입증했다. 그는 지도자로 UCL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레알 마드리드의 명 미드필더 토니 크로스는 개인 통산 6번째로 UCL 우승의 영광을 안으며 축구화를 벗었다.

뮌헨의 러브콜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12시즌 동안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해 '의리남'으로 불린 마르코 로이스는 끝내 UCL 우승의 '낭만 스토

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노란 유니폼을 벗게 됐다.

도르트문트는 웨블리와 악연을 이어갔다.

도르트문트는 11년 전 2012-2013시즌 대회 결승에서 뮌헨에 패해 준우승에 그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당시 결승전 장소도 웨블리였다.

전반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들어 비니시우스, 카르바할을 앞세워 조금씩 우세하게 흐름을 가져갔다.

카르바할과 크로스, UCL 경험이 많은 두 베테랑이 결승골을 합작했다. 크로스가 왼쪽에서 올린 정확한 크로스를 카르바할이 방향만 바꾸는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에딘 테르지치 도르트문트 감독은 예매 잔 대신 도니얼 말레, 율리안 브란트 대신 세바스티앵 열레를 잇달아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그러나 도르트문트가 새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인 후반 38분 레알 마드리드의 쇄격이 터졌다.

도르트문트 이안 마르센의 백패스가 주드 벨링엄에게 향했고,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가 왼발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다.

도르트문트는 후반 32분 니콜라스 필크루크의 헤더로 한 점을 따라붙는가 싶었으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승부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

남자 400m 계주 압도적 1위, 그러나...

대만 국제육상선수권 정상...올림픽 출전권은 아직 못따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 김태호,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상 광주시청)이 지난 1일 열린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결선에서 정상에 올랐다.

대표팀은 39초25를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41초16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 1위에 올랐지만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아직 따내지 못한 상태다.

총 16개 팀이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계

주 400m에서 남아있는 두 장의 파리올림픽 티켓은 2022년 12월 31일~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팀이 받는다.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지 못한 나라 중 기록순위 1, 2위는 브라질(38초19)과 터키(38초30)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6월 30일 안에 '38초30'의 기록을 깨야만 파리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계주팀은 오는 14일 열리는 태국 오픈 대회에서 다시 한번 기록 깨기 도전에 나선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베에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